“완도 봄 축제 즐기고 상품 받아 가세요”

6일 개막 ‘청산도슬로걷기축제’부터 한달간 특별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완도 방문 관광객에 푸짐한 특산품 증정

“완도 봄 축제 즐기고 상품 받아 가세요.”

완도군은 6일부터 한 달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봄 축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포스터〉

완도군에 따르면 6일 개최되는 ‘청산도슬로걷기축제’와 다음 달 3일 열리는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기획했다.

‘완도관광 스탬프 투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 한 뒤 완도 관광지로 등록된 46개소 중 13개소 이상을 둘러보고 상품을 신청하면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꾸러미(3만원 상당)를 상품으로 증정한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인증 지역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전자 도장이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광 앱으로 지역 관광지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음식점, 특산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스탬프 획득 수에 따라 특산품을 선물하는 상시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군민인 완도군민은 참여대상에 제외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해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관광 모바일 어플 설치 및 특별 이벤트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나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남파랑길 3개 구간 46km
달마고도 연계 도보여행 명소 육성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남군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남파랑길은 길이 1463㎞에 이르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로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에 이은 두 번째 코리아둘레길 노선이다.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5개 코스 90개 구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2020년 하반기 정식 개통을 목표로 걷기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된다.

해남군의 남파랑길 포함 구간은 3개 구간 46km다.

북일면 내동-북평면까지 이어지는 해안길과 북평면 남창-송지면 미황사, 미황사-땅끝탑으로 이어지는 숲길로 구성돼 있다.

군은 구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 여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간내 ‘남도명품길 달마고도’의 일부 코스가 편입된 만큼 이미 조성이 끝난 달마고도와 연계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남파랑길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만큼 해남구간이 남파랑길 내에서 최고의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은 최근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감염병 사전예방·확산방지 교육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90명에 위촉장 전달

진도군이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성진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을 초빙해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발생 시 신고요령, 사전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9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의료기관, 보건교사 등 감염병 업무 담당자로 감염병 환자 진단·발견 시 보건기관에 통보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봄철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미세먼지 저감 효과 황칠·사과나무 등 1만본 제공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산림조합 추모관 주차장에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열었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 증진,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진도군산림조합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킬러라 불리는 황칠나무와 사과나무 등 경제수종 5종과 유실수 1만본을 1인 5본씩 나눠 주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산림경영담당 은 “나무심기 좋은 식목철인 봄철을 맞아 내 나무를 가져 가꾸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황칠공예전’
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벽암 김정남 작.

완도군이 오는 9일까지 서울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황칠공예전을 연다.

이번 공예전은 금빛 찬란한 황칠의 명성을 되찾고, 완도 황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완도의 특산물인 황칠은 과거 약재와 도료로 사용됐다. 한, 중, 일 삼국에서 황금에 비교될 만큼 귀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도료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그 맥이 끊겨 약재로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류오현, 배철지 작가가 고문헌을 참고하고 수회에 걸친 실험으로 황칠 도료 복원에 성공한 후 2017년 말 특허를 등록해 이번 공예전을 개최했다.

전시 작가는 벽암 김정남, 서강 김태호, 소명 류오현, 범중 배철지, 토화 이창수 등이며 황금색의 휘황한 광채를 띄는 황칠의 신비로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30점 이상이 선보인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예전은 황칠의 주산지가 완도란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지난해 완도 황칠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됐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해남읍성 관리방안 마련 용역 추진

군, 청사 신축 앞두고 주변 노거수도 생태문화자원 활용

해남군은 청사 신축을 앞두고 해남읍성과 주변 노거수〈사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남군청 뒤편에 남아있는 해남읍성은 길이 99.2m, 높이 2.8~4.2m의 세종19년 전후시기에 만들어진 석축성이다. 조선 명종 10년(1555년) 일본 대마도 해적들이 침입한 달량진사변 당시 인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해남읍성만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이를 기념해 심은 군청 앞 수성송과 함께 해남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군은 2016년 해남읍성 시굴조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해남읍성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사 실시설계에 따르면 해남읍성은 과거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관문인 해남읍성의 루(樓)를 모티브로 한 ‘해남루’와 연계해 보존, 신청사의 대표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팽나무와 푸조나무 등 수령 약 150년 된 11그루의 성터 주변 노거수는 해남읍성의 애환과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관리된다.

특히 노거수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진단과 3~5년간의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새로운 생태문화자원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사 및 의회동 신축시 읍성과 노거수를 연계,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가 함께하는 창조적 주민 화합의 어울림터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